

# 양봉협회, 벌꿀정화에 앞장!

“  
규격기준 미달 제품 적발...벌꿀 수거 검사 실시  
꿀차 표기 미흡, 벌꿀 제품과 혼란 우려돼”

꿀차로 판매되는 일부 제품 중 눈에 띄지 않는 차(茶)의 표기로 벌꿀제품과의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양봉협회는 벌꿀 정화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시중에 판매중인 벌꿀과 꿀차 제품을 자체 수거해 검사한 결과, 꿀차 제품의 차(茶) 표기가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기 어렵게 한자로 되어 있거나 크기를 작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꿀차를 벌꿀로 오인하여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자칫 구매 후에도 꿀차 제품임을 인식치 못할 경우 벌꿀에 대한 품질 불신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꿀차 제품에 대한 규격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할 근거도 없는 실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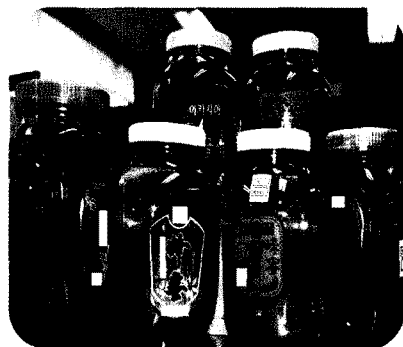
다. 이에 양봉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꿀차 제품에 대해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시중 판매 벌꿀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규격기준 미달 제품(전화당 미달) 1개를 적발했다. 최근 벌꿀제품의 규격기준 문제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간혹 한 두 제품에서 규격기준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협회는 자체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배경수 회장은 “한 두 개의 제품으로 전체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불신은 한순간에 생기지만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만큼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인 벌꿀 정화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꿀로 오인하기 쉬운 꿀차들



일반꿀과 같이 놓여있으면 구분이 어렵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茶라고 쓰여있다.



차  
자가 필증

협회 필증으로 오인하기 쉬운 형태의 자가필증. 벌꿀 품질보증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茶)라고 쓰여 있다.



협회 필증